

●대림 제 2주일 강론

만약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선약이 있으니 오늘은 안 된다고 할까요?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를 할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을까요? 잔잔한 음악을 틀고 은은한 차를 대접할까요, 식사를 대접할까요?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을 불러 함께 만날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만날까요?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으니 준비되었을 때 연락드리겠다고 할까요?

대림초에 두 개의 불이 켜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3,2)고 외칩니다. 주님은 이천 년 전에 이미 오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 치릴로 주교는 「예비자 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오실 때 그분은 강보에 싸여 구유 위에 누워 계셨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빛을 겹옷 삼아 입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당하셨고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영광 속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다시 재판받으러 오시지 않고 당신을 재판정에 불렀던 이들을 심판정으로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은 누구입니까? 혈육으로는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이 늙고막에 얻은 아들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친척이며 품성으로 말하자면 굳센 정신의 소유자(루카 1,80)입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로 된 옷에다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으며(마태 3,4)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자주 단식한(루카 7,33) 엄격한 수행자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일일이 회개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혼쭐내는 걸 보면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3,11~12)고 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께로 몰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요한 3,29)고 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요한 1,20),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요한 1,23)라며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작은 나라를 여기저기 조각내며 썰 새 없이 길을 닦는데도 지난 추석 때 교통 체증은 사상 최고였다고 합니다. ‘천국 도로공사’는 교만의 산은 깎고 열등의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내면의 길을 닦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더 근본적인 이 길을 준비하고 닦는 천국 도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3,3) 장자는 “토끼를 잡는 덫의 목적은 토끼를 잡는 데 있으며 토끼들이 잡히면 그 덫은 잊혀진다. 말의 목적은 생각을 전하는 데 있다. 그 생각이 전해지고 이해되면 그 말은 잊혀진다.”고 했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요한은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말을 제거한다면 소리는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빈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과 소리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소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니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달을 가리킨 손가락인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는 말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례를 받고 싶은 예비신자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온 동안 지은 많은 죄를 빨리 용서받고 싶어서라고 했습니

다.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진다고 했더니 어떻게 그 모든 죄가 쉽게 용서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전을했습니다. 그는 세례성사 받을 날을 기다리며 매일 성경을 읽고 성모당을 순례하였습니다. 이마에 물만 붓는다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마태 7,21)는 말과 같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루카 3,8)를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며,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고, 군사들은 남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루카 3,10--14 참조).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일 말고 멀리 있는 이웃들, 사회적 문제, 인간성과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한 시대의 징표에 무지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무지함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라자로에 대한 부자의 죄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우리도 무관심으로 인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길의 휴지를 줌한다고 효과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뭇만큼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에 한 사람의 뭇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퍼줄 한 조각에 비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 조각들이 모여 하늘 나라 퍼즐이 완성될 것입니다. 남의 자리를 기웃거리지 말고 내 뭇에 충실하고, 소리가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대림에 바치는 기도

|                                                                          |
|--------------------------------------------------------------------------|
| 우리를 구원하신 천상은총이<br>우리게 기쁜구원 내려줄것을<br>위대한 예언자들 미리알고서<br>예수임 오실것을 선포하였네     |
| 다가올 기쁜영광 미리알리는<br>진실한 예고소리 울려퍼지는<br>이아침 유난히도 빛을발하고<br>기쁨이 마음에서 솟구치누나     |
| 사람들 범죄한후 처음오심은<br>세상을 처벌하기 위함아니고<br>쓰리고 아픈상처 싸매주시며<br>있었던 모든사람 구하심이네     |
| 세말에 다시오심 예고하나니<br>심판날 성인에게 상급주시고<br>행복한 하늘나라 문을 여시려<br>예수님 문앞에서 기다리시네    |
| 영원한 하늘의빛 이미퍼지고<br>구원의 아침새별 반짝이나니<br>찬란한 천상빛이 우리를불러<br>천국의 시민되라 초대하시네     |
| 예수님 당신만을 찾고있으니<br>당신의 천주성을 보여주소서<br>그모습 영원토록 바라봐오며<br>세세에 찬미노래 부르오리다.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미사안내  
오늘은 공소예절로 진행됩니다.

● 성탄 대축일 판공성사  
2차:12월 16일(셋째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3차:12월 23일(넷째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미사 후-30분  
(가능하시면 미사전 시간을 이용해주세요)

●송년 확대 사목회의  
일시: 12월 16일(셋째 주일)-미사 후  
장소:박재영 형제집(307 Castle field, waterloo)  
비고: 각 부서 장/차장, 총무 및 각 구역장,  
울뜨레아 간사, 총무 포함

● 김영삼 시몬형제님 가족이 이사 가십니다.  
그 동안 성서 100주년을 이끌어 주시던 김영삼  
시몬 형제가 개인 사정으로 밴쿠버로 이사를  
가십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성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2008년도 현금 봉투  
새해 현금 봉투를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세요.  
새로 필요하신 교우는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서원일 재정부장

● 바뇌기도회  
12월 12일(수) 오후 7시30분/ 김직현 형제집

● 4구역 송년모임  
12월 22일(수) 오후 8시 / 윤성호 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판공성사 안내  
12일 버팔로, 14일 런던, 18일 예수성심  
19일 한 맘, 20일 해밀톤본당

● 성탄 미사 안내  
12월 24일 월요일 밤 10시 성탄 성야미사  
12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성탄 본미사  
오후 6시 친교식사  
오후 7시 구역별 장기자랑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와  
신년 인사 오후 5시 미사 및 인사  
오후 6시 친교식사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은 실수보다  
남이 지은 실수를  
더 너그러이 보아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흘리고 있는 눈물보다  
남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먼저 닦아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조금 더 가진 것을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이들과  
기꺼이 나누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짐도 무겁지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의  
짐을 함께 들어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야할 길도 바쁘지만  
자신보다 먼저 그 길을 가야하는 이를 위해  
손 흔들며 길을 내어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나도 당신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닳하기 전에  
이미 거친 세상의 거름이 되고 계신 당신  
그 웃음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2007-49 2007. 12. 9.  
대림 제 2주일

|              |                   |
|--------------|-------------------|
| 주일 미사        | 주일 낮 11시 30분      |
| ▶ 서부 공소 (주일) | 오후 4시             |
| ▶ 동부 공소 (토)  | 오후 7시             |
| 평일 미사        |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
| 성모 미사        |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
| 성 시 간        |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
| 주일 학교        | 주일 낮 12시 미사 중     |
| 예비자교리        |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
| 유아 세례        |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
| 견진 성사        |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
| 혼인 성사        | 결혼 6개월 전 면담       |
| 고해 성사        | 미사 전·후            |
| 병자 성사        | 병환 중과 임종 직전       |
| 주임 신부        | 고 원 일 안드레아        |

미 사 전 레  
해 설 이민 차주 해설 김근효

화 답 송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81) 요르단 강에서  
봉 헌 (221) 받아주소서  
퇴 장 ( 92) 구세주 내 천주여  
독 서

|         |     |     |
|---------|-----|-----|
| 12월 9일  | 이동기 | 이정숙 |
| 12월 16일 | 서원일 | 서소영 |
| 12월 23일 | 정경래 | 정문진 |

|         |     |     |
|---------|-----|-----|
|         | 봉   | 헌   |
| 12월 9일  | 김영삼 | 김정현 |
| 12월 16일 | 이동기 | 이정숙 |
| 12월 23일 | 서원일 | 서소영 |

|         |    |    |
|---------|----|----|
|         | 복  | 사  |
| 12월 9일  | 원영 | 지현 |
| 12월 16일 | 경은 | 한힘 |
| 12월 23일 | 하람 | 현재 |

| 2007년 12월 2일 현금 내역 |           |
|--------------------|-----------|
| 주일헌금:              | \$ 702.00 |
| 성전건립기금:            | \$ 260.00 |
| Total:             | \$ 962.00 |